



기독교 직장인

2024년 봄호 통권 315호





가톨릭 직장인

2024년 봄호 통권 315호



표지설명

“미사로 하나되는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주제 아래 각 직장 교우 공동체 안에서의 미사봉헌 모습을 담아 표현된 디지털 아트웍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신비체(神祕體)’로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다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1고린12,27)

03 목상글

사목일기

- 04 고쟁이와 할머니 김명중 시몬
- 08 사목 일기 양재모 안드레아

나의 일터, 나의 신앙

- 10 주님과 함께 두박두박 오태영 스테파노
- 32 바티칸의 추억과 칠곡의 교훈을 떠올리며 노석균 바오로

복음 묵상

- 14 불편함이 주는 지혜 남창현 토마스테아퀴노
- 36 참된 행복 남창현 토마스테아퀴노

- 16 직장인 성지 Guide 윤정민 마탈다

교회의 가르침

- 18 함께 읽는 성경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리아
- 22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박동호 안드레아
- 24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이중배 마르티노와 원경도 요한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 29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마리노 박희전 루케시오

듣다 읽다 보다

- 38 고전 음악을 듣다 비버의 바이올린 소나타 16곡 조병선 바오로
- 44 신앙인의 영화보기와 세상 다양성은 관용을 필요로 합니다! 정현영 요셉
- 48 산티아고 가는 길 지금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① 심연선 소화테레사
- 54 정원을 거닐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클로이스터 정원 황주영 레지나
- 58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 이야기 속죄하고 회개한 성인들 윤인복 소화테레사

- 62 News & Views

- 63 직장 복음화를 위한 참된 행복

십자가의 무게가
당신 어깨에 너무 무겁다 느껴지거든,
하느님께 구하여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올리브 산에서 아버지에게 짐을 가볍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든
고개를 숙여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피앗(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고쟁이와 할머니

김명중 시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하하하. 신부님이 고쟁이를 입으셨네요.” “오우~ 멋져요 신부님!” 시골의 한 피정의 집에서 신자분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패션쇼가 펼쳐졌다. 저녁 식사 후 아가페 시간이었다. 몸빼 바지라고 일컬어지는 고쟁이를 입고 워킹을 하는 내게 할머니는 다가와 두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는 떨고 있었다. 이윽고 결결이 새겨진 눈가주름에 맺힌 눈물이 굵은 빗방울 마냥 바닥에 툭하고 떨어졌다.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눈물이었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은 생경한 표현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순간 나는 언젠가 읽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なにもしない人)』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책의 내용은 주인공 모리모토 쇼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렌탈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받는 의뢰가 그냥 옆에 있어 주기, 지하철 같이 타기, 함께 사진 찍기, 2시간 그냥 걷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전

국을 다니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누군가의 부담 없는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이야기이다.

“홀주 말아가 그냥 꾸짖에 치박아도 모를 터인데...” 할머니는 그간 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분들께 당신이 만든 고쟁이를 선물해 드렸는데 입은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 좋아하셨다. 할머니에게 고쟁이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며 사랑이었다.

경청에 관하여 서술된 책이 참 많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경청이 단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청은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제로 살아온 지 근 이십여 년을 살펴보니 지난시간 내가 신부로서 어떤 무엇을 해서(doing)가 아니라 그곳에 있음(being)으로써 사목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 대단한 일, 위대한 무엇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웃어주고, 수다를 떨고, 밥을 먹고, 행복한 시간에 머무르면 그저 모든 것이 완성되곤 하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

비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산 언덕 그 자리에 '있음'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完城)하셨던 것처럼, 사제는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을 닮아가려 할 때, 그분의 눈빛을 그저 견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 1889)이 말했던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는 말에 적극 동의하게 된다. 사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닌 '거기 있음'으로써 완성된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앙인은 거기 있음으로써 완성된다. 인구소멸국가 1위를 달리는 현재에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고, 서빙 로봇이 서빙을 하며,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역할을 줄여가는 가운데 존재, 있음의 의미는 더 절실하다.

백발이 되어 성지순례객을 기다리는 시골 마을의 공소회장님도,

성당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봉사자분들도, 성당 뒷편에 아직 풀리지 않은 목을 푸는 성가대도 거기 있음으로써 완성된다.

주말이 되어 성당 마당을 뛰노는 아이들도, 자식이 언제 오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는 백발의 부모님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리를 지키는 사무실 직원도, 목주를 만지작거리며 일터를 나서는 신자분도, 텅 빈 성당을 홀연히 지키고 있는 신부님, 수녀님도 그곳에 있음으로써 완성된다.

‘타자(他者)가 곧 지옥’이라는 샤르트르의 말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있음(being)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타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이 된다. 오늘도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새벽길을 내달리며 일터를 나서는 신자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고맙습니다. 바로 거기 있어 줘서...” ⊕



사목 일기

양재모 안드레아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5년간의 군종교구 파견을 마치고 서울교구로 복귀해 이곳 사목국 직장사목팀에 부임한 지 어느덧 2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던 터라, 거의 대다수의 교우회 모임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일부 교우회들만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한가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죄책감마저 느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차차 활동을 재개한 교우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느꼈던 그 죄책감을 털어보라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본격적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였을까, 작년 9월 인사 발령을 통해 교구에서는 직장사목팀 사제 정원을 한자리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신부 셋이서 나누어 담당하던 교우회들을 이제는 둘이서 나누어 맡게 된 것이죠.



작년은 직장사목부가 발족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연말엔 교구장님과 역대 부임하셨던 신부님들을 모시고 교우들과 30주년 감사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직장 사목부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펼칠 수 있도록, 역대 신부님들께서 얼마나 노고를 기울이셨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교우회원들에게 모임 일정을 공지하고 미사 준비 및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각 교우회 회장님과 총무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신부가 큰 어려움 없이 교우회를 방문하고 돌볼 수 있음을 여실히 느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활동이 재개되지 못한 교우회들이 아직 몇 곳 있습니다. 이들 교우회도 2024년 갑진년에는 다시 모임이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과 함께 두박두박

오태영 스테파노_우리은행 교우회

“오 과장, 다른 도시에 지점을 개설하려고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데, 뭐 꼭 오 과장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갈 생각이 있나 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2012년 늦은 가을에 받은 부장님의 전화는 제 신앙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장 승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대도시에서 살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한참 적응해 나가던 중 그곳에서는 시골로 여겨지던 소규모 도시에 파견할 직원을 한국에서 데려오지 않고 이미 그 나라에 근무 중인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미 같은 전화를 받은 다른 동료들처럼 가족이 아파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살아야 한다는 등의 속이 뻘뻘 보이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은 마치 그것이 제 운명이라는 듯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제가 가야될 것 같네요.”라고 체념 섞인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외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된 데다, 함께 근무하게 된

상사는 성격이 만만치 않아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환경, 가족과의 이별, 힘든 상사와 함께하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던 중 오랫동안 주님을 잊고 살던 저는, 미사 드리는 시간이라도 위로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성당엘 나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처음엔 현지인 미사를 함께 드리다가 나중에는 한인 미사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인 미사에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주일미사나 겨우 참석하던 제가 레지오 모임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성가대 활동까지 하게 되며 놀랍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묵주기도를 하며 성모님과 대화하는 습관은 그때 이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저의 루틴이 되었고,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의지하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순명’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더러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천사의 말에 성모님은 순종하셨는데, 제가 성모님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사람이지

만 이까짓 일쯤 못 견디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저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제 직장과 일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귀국 이후에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민원 업무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드는 일조차도 끝까지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해결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전담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도망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

월레미사에서 우리은행 직원들과 함께



의 손을 잡아 주시며 저를 지켜주셨는지, 그 시간도 잘 넘길 수 있었고, 이젠 어떤 분을 만나든 무슨 처지가 되든 내적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세례를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세례받던 해에 취업하게 되었으니저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러 근무지를 옮겨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에서 일해 온 스물세 해를 돌이켜보니, 처지에 대해 불평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려고만 했던 젊은 날의 부끄러운 저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광야에서 사십 년을 단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역사와 제 직장생활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 땅에 닿을 때까지 제 신앙과 일상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습니다. ⊕

불편함이 주는 지혜

남창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_광희문 성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책장에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성무일도서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성직자가 성무일도를 바치는 게 당연한데 묵혀 두었다니요? 네, 지난 몇 년을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무일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두꺼운 성무일도를 다시 꺼내어 흩어져 있는 책갈피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기억을 더듬어 제 순서에 맞추어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기도가 끝나면 다시 책갈피를 옮겨 나머지 기도 부분을 찾고, 즈가리야의 노래, 성모의 노래 부분을 또 찾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옛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얇은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 손에 닿는 감촉들, 그리고 오래된 성무일도 기도서의 색 바랜 종이를 보면서 웬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 액정을 보며 바치던 성무일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편리함과 편안함에는 그림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더 이상 전국도로지도도 뒤적이거나 근처에 도착해서 길가는 행인에게 차문을 내리고 목적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노랫말을 외우려 반복

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좋은 벗에게 손 편지를 써서 한참동안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편해졌고, 훨씬 더 빨라졌으며,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사이 우리들은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노래방기계가 없으면 좋아하는 노래여도 가사를 잊게 되었고, 문자메시지마저도 바로 답신이 없으면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리니 과정의 번거로움이 주는 즐거움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면서 편안함을 당연시 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것에 의존하게 되어 급기야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정이 주는 불편함이 제거된 일상은 공허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거대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불편한 자극을 주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고 강건해 지는 까닭입니다. ⊕



직장인 성지 Guide

윤정민 마틸다



“

2024년 봄호부터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한 공간을
찾아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성지를 소개합니다.
서울 근교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
선조들의 삶과 영성이 머문 쉼터에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구산 성지

교우촌인 구산 마을에 자리 잡은 구산 성지는 박해시대의 흔적이 원형대로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이며 많은 순교자들의 얼이 배어있는 장소입니다.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과 가족 그리고 구산 출신 순교자 등 9명이 구산 성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교 성지

조선시대 군사요충지인 남한산성에서는 무수한 천주교인들이 치명 및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차례의 박해기간 동안 한덕운 토마스, 김덕식 아우구스티노, 정여삼 바오로 등 알려진 순교자들 이외에 70명 이상, 실제로는 2~3백 명으로 추산되는 신앙인들이 순교한 곳입니다.



천진암 성지

한국 천주교의 요람인 천진암은 1779년 학자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10명의 제자들이 서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연구하며 믿음으로 승화시킨 성지입니다. 현재는 정약중, 이승훈, 권철신, 일신 형제, 이벽, 정하상, 유진길 성인들의 묘를 참배할 수 있습니다.



마재 성가정 성지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의 고향인 마재는 한국 천주교의 근원지입니다. 형제들 중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는 한글 교리서 '주요교지'를 발간하고 평신도 단체 '명도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며 교회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성녀 유조이 체칠리아와 자녀인 복자 정철상 가롤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 모두 순교하며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_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창세기 공부

(25장-29장) 1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레베카의 결혼 특징은 부모가 신앙을 중심으로 짝 지워준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의 혈통으로 후손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가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하는 것을 크게 염려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대대손손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땅에 정착했을 때 그 지역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가치와 사고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중에는 이방인 여자들을 첩실(妾室)로 들였는데, 솔로몬 왕궁은 종교의 혼합으로 결국 타락하고 솔로몬의 말년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인성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



고베르 플링크,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1638년, 캔버스에 유채, 140,2x115,2cm

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희생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창세기 25장부터 29장에서는 이사악과 레베카 부부의 쌍둥이 두 아들,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룹니다.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특징과 성격이 전혀 판판이었습니다. 형은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이름을 에사우라 붙였습니다.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사악은 에사우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어머니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엇갈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편애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

◎ 다음의 문제를 읽고 성경을 찾아 답을 찾으세요.

-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5,8-9)
- 이사악이 관 우물을 두고 많은 이들이 시비를 걸었고 여러번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은 우물에 붙인 이름은 무엇인가요? (26,22)

◎ 다음구절을 읽고 직접 필사해보고 여러번 읽어보세요.

- 창세기 26장 28절-29절
- 창세기 27장 28절-29절
- 창세기 29장 31절-32절

◎ 말씀의 요약

에사우와 야곱을 보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보고 영적 일기를 써봅시다.

이사악과 레베카의 두 아들,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외국 문학과 영화에도 많은 영감을 준 이 대목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사악의 두 아들은 중요한 장자권의 축복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사회적 약자 최우선의 사회교리 원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내놓은 말씀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마치고 율법 학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와 생각(이념)이 맞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으라 요구하십니다. 곧 나보다 처지가 낮은 사람, 심지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난’(아나뵘)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약자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며, 종교적으로 차별받는, 그래서 세상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이들을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

다.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그것이 그의 무능이나 부도덕(나태와 무책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사회·구조적배경 때문에 그런 처지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확장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다수의 시민이 노동의 기회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대세인 사회에서 절제의 생활을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그가 스스로 약한 처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를 약한 처지로 밀어 넣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표현 같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인물 곧 ‘강도들을 만난 어떤 사람’의 처지와 유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어린이) 세대’와 ‘창조 세계(자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물론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보호받고 있지만, 오늘의 어른 세대가 만들어놓고 떠난 그 자리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황무지’라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험난함은 그 세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떠맡은 것’입니다.

자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하늘은 원래 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늘을 오염시켰습니다. 땅은 원래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했고, 그 탓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 탓으로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동식물)이 멸종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강도들을 만난’ 형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시대의 ‘강도들을 만난 어떤 사람’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도 “가없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

이중배 마르티노와 원경도 요한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중배 순교복자
李中培, 마르티노
1751?~1801
그림 ©여농성지

여주에서 순교한 인물 가운데 이중배 마르티노는 옥살이 가운
데서 의술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다블뤼 주교의 <조
선 주교 순교자 약전>에서 전해지는 그의 모습을 요약하여 살
펴봅니다.

“마르티노는 여주 고을 출신이었고, 곧고 분명한 성격을 지
니고 있었으나 과격한 면도 있었다. 그는 의학 분야에 꽤 확실
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그가 천주교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곧 성격의 과격함이 길
들여져, 성격 가운데 확고함과 올바름만을 유지하였다.

아버지와 처와 함께 온 집안이 열심히 천주교에 전념하였
는데, 1800년 음력 3월 부활 축일에 (정종호)라는 이름의 천주
교인 집에서 다른 이들과 붙잡혔을 때 단호하게 처신하였다.
수감된 이중배에게 아버지가 찾아왔다. ‘제가 정녕 백발의 네
아비를 여기 남겨두고 죽으려 하느냐?’ 이중배는 대답하였다.
‘아버지, 제가 효심의 진정한 원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혈육의 자연적인 정(情)만을 고려한다면 제 행동은 관대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천상의 일을 생각해본다면 우리 공동의 아
버지이며 우리의 왕이신 만물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옳겠습

니까?’ 그는 수감되어 있는 다른 교우들을 독려하였다. 음력 3월 13
일 여주에서 5인이 참수당할 때 함께 순교하였다.”

양반 출신이었던 이중배는 천주교를 통해서 본래의 좋은 품성이
더 다듬어지고, 그의 곧고 용맹한 성격이 신앙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
러나게 되었습니다. 황사영 <백서>에는 이중배 마르티노의 삶을 보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배 마르티노는 소론의 일명(一名=서열) 출신으로 경기도 여
주에서 살았는데, 용맹이 남달리 뛰어나고 의지와 기개가 아주 쾌활
하였습니다. ... 그의 열심은 불같이 뜨거웠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대담하게 행동하여 남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신
년(1800) 부활 축일에는 개를 잡고 술을 빚어 한 마을 교우들과 길가
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부활삼중 기도를 외우고, 바가지와 술통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원수진 집의 밀고로 열한 명의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관
청으로 끌려갔습니다. ... 마르티노는 본래 의술을 알고 있었으나 그
다지 깊이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후 혹 병에 대하여 문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 침을 놓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명성
이 크게 퍼져서 멀고 가까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옥문 밖은 늘
장날 같았습니다. 본관(本官=수령)도 금할 도리가 없었고, 자기도 병
이 나면 와서 약 처방을 얻어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옥 안에서도 일용
물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 ‘사람들이 마르티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물으면 칭찬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열 명
중에 여덟, 아홉 명은 고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열이



면 열, 백이면 백, 한 사람도 효험을 보지 못한 이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옥리가 의서를 좀 보고자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내게는 의술을 적은 책은 없소. 다만 천주를 공경할 뿐이오. 당신도 의술을 배우려거든 주님을 믿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옥리가 '책들은 다 불태워 버렸는데 어찌 배울 수 있단 말이오?'하고 다시 묻자, 마르티노는 웃으면서 '내 가슴속에 있는 불태워 버리지 못하는 책으로 충분히 남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믿고 행하게 할 수 있소'하고 대답하였습니다. ... 마르티노는 옥중에서도 늘 책을 베끼고 경문을 외우며 진리를 설명하여 사람들을 권유하였습니다. 옥졸 한 사람이 감화되어 믿고 따랐으며 열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사영 <백서>에는 1801년 박해 때 순교한 이들에 대한 행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중배 마르티노에 대한 내용에는 그의 의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그의 거리낌 없는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곧은 성격은 천주교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용덕(勇德)으로 표출되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공적으로 드러내다가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고한 고백으로 응답하였고, 자신이 가진 의술의 지식과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옥살이는 보통 옥바라지 하는 가족들에 의해 물품이 조달되는데, 이중배의 경우에는 일용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가진 의술의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중배 순교복자는 용기와 의술의 복자(福者)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경도 순교복자
元景道, 요한
1774-1801
그림 ©어농성지

원 요한은 '사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1797년 경 사촌 이중배 마르티노와 함께 김건순 요사팻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원 요한은 온 가족을 천주교에 입교시켰으며,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1800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이 마르티노와 교우들과 함께 부활을 축하하며 성가를 부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여주 관장은 형벌을 가하면서 심문했습니다. "너를 가르친자와 너의 공범자들을 고발하라. 그리고 천주를 부인하라." 원 요한은 대답합니다. "누구라도 고발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어느 누구에게라도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저의 하느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옥에는 자신의 장인 최 마르첼리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형벌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상처는 기적적으로 낫곤 했습니다.

1800년 10월 경 원 요한과 동료들은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들의 최후 진술을 받고 사형 선고를 한 뒤,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천주교에 깊이 빠져 교회의 지시대로 형에게 제사를 폐지하도록 권하였으니, 이는 인간의 도리를 모두 끊어 버린 행위이다."

그 후에 조정에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경도 요한과 동료들은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27세 혹은 28세였습니다.



성 마리노 St. Marinus 축일: 3월 3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같은 날 순교한 여주 출신의 5인의 순교자에 대한 기록은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로 돌아온 이 신앙 고백자들은 고통의 끝과 항구함의 보상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으니, 음력 3월 13일에 그들 5명은 마을 성밖에서 참수당하였다. 최(창주) 마르첼리노는 53세였고, 원(경도) 요한은 28 혹은 29세, 이(중배) 마르티노는 50여 세, 정종호는 약 50세, 그리고 임희영의 나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경기도 여주 출신의 용맹한 순교자들은 같은 날 천상탄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순교자 기록에서는 이들 5명이 사형당할 때의 뒷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5명을 순교시킬 때, 병사 여러 명이 각자 한 사람씩 말아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모두가 이것을 거부했지만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여 과연 그렇게 하였다. 곧 그는 자신이 방금 형을 집행한 이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며 강으로 급히 뛰어갔고, 그 후로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 교인들은 이를 하늘이 내린 별이라고 여겼다.”(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이처럼 교회 기록을 토대로 두 분의 순교복자 이중배 마르티노와 원경도 요한을 함께 기억해봅니다.



묵상

이중배 마르티노의 의술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기 보다는 믿음을 가진 의술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영신적 치유를 받을 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요? +



지금도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시절에 불포탄이 날아다니던 그때에, 홍남부두에서 60인승의 화물선으로 무려 1만 4천여명의 피난민을 구한 기적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메리디스 빅토리오호라는 화물선의 선장이었던 라루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후에 ‘용감한 배(선박)’라는 상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 기억에 남는 선박이 되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마린보이로서 해군 제복을 입고 나타났어야 하지만, 그는 1960년 수상 시절에 베네딕토회 수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1950년 홍남부두 철수 사건 이후에 그가 뉴저지에 있는 베네딕토회 수도원에 노동하는 평수사로 입회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과 영웅적인 행위를 오로지 감추려고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라틴어로 ‘푸가문디’, Fuga Mundi)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바로 이런 인연에서 왜관 베네딕토회 수도원에서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튼수도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삼게 되었고, 현재도 왜관 본원 수사님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은 스스로 봉쇄생활을 택하여 오직 주님과과의 통교에만 힘쓰는 그런 평범하고 참

조용한 사람, 침묵과 기도와 노동의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라루 선장, 곧 마리너스 수사님은 1950년 12월 23일 왜 기뢰가 깔린 홍남 앞바다를 떠나지 않고 피난민을 실겠다고 결심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 15,13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벧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아빠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셔야 하는 비참한 숙명이셨지만,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그저 응답한 것이라고 마리너스 수사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현재 미국주교회의는 만장일치로 마리너스 수사님의 시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함은 머리에서부터 양손과 양발까지 일관된 진리로 관통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해 주는 놀라운 모범입니다.



마리너스(Marinus) 수사님이 된
라루 선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리노(Marinus) 성인도 역시 로마 제국시대의 초기 순교자요 군인으로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로마의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의 명성이 드높았지만, 막상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결국에는 복음을 선택하면서 “빨리 하느님께 가고 싶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렬하게 순교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순교자 마리노 성인도 그렇고, 라루 선장이었던 마리너스 수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빨리 하느님께 가고 싶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저

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의 어원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제국 시절의 성(Family Name)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리누스(Marinus)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리우스(Marius) 혹은 “바다의”(of the sea)를 뜻하는 단어 마리너스(marinus)에서 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인 마리우스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Mars)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계의 ‘화성’을 뜻하기도 하는 이 마르스는 라틴어로 그 뜻이 “남성적인, 남자다운(male)”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남성적인 모습에 반대되는 여성적인 측면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모님이신 “마리아”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종합한다고 해도 이 ‘마리노, 마리누스’라는 세례명의 영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곧바로 정면승부로 돌파하는 솔직담대함”입니다. 인간이 무약하다는 증거가 바로 문제나 고난의 상황에서 자꾸 회피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직면하고 정면승부하여 빛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

**“그날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메러디스호 라루 선장 글

바티칸의 추억과 칠극의 교훈을 떠올리며

노석균 바오로_예금보험공사 교우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신학교도 아닌 데 천주교 신자 모임에 가입하려면 가톨릭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나? 예보 내 천주교 신자 모임 명칭은 마치 회원들이 성경 공부라도 진지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가톨릭 연구회(회장 이미영 아녜스)’이다. 이 모임은 2007년에 만들어졌으며 회원은 50여 명으로 가톨릭 연구 대신(?) 매

달 약 10~15명이 월례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머 감각(진지한 표정으로 툭 던지시는 말씀이 더 재미있음)도 충만하신 김명중 시몬 신부님이 새로 예보를 담당하게 되신 후 매달 출석부 겸 기념 삼아 단체 사진을 촬영해서 다음 달에 인화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모아 두면 나중에 추억거리로 좋을 듯하다.

월례미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과 함께



필자는 본당 남성 구역모임 몇 년 해 본 것 외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본당 활동은 거의 한 적 없는, 말 그대로 날라리 주말 신자에 불과한 사람이다. 25년간 여의도 금융업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15년 초 예금보험공사로 이직하면서 직장 내에 천주교 신자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가입하여 매월 1회, 화요일 점심시간에 열리는 월례 미사에 참석해 오고 있다.

민간 회사에 다닐 때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만 예보에 근무하면서 좀 긴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유럽 지역 여행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지난 가을에는 파리,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로마, 바티칸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파리에서는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난 2019년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붕괴되어 복원 건설 중에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파리를 올림픽이 끝난 후 2024년 말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는데 ‘빨리빨리’가 일상화된 우리나라라면 몰라도 가능할까 싶다.



전 세계 가톨릭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로마 바티칸에 들어가는데 일반 입장은 보통 서너 시간 줄을 서야 한데, 입장료를 조금 더 내면 줄을 서지 않는 패스트 트랙(이것도 약간 줄을 서야 한다.)이 있다니... 현대판 면죄부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일단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바티칸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다.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하고서도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떠밀려 가듯이 가야 한다. 정신없이 박물관을 관람한 데 반해 시스티나 성당(Cappella Sistina)에 들어가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보티첼리, 페루지노 등이 그린 프레스코 벽화들을 시간 여유를 두고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후 성 베드로 대성당(Basilica di San Pietro)으로 이동하여 지난 9월 중순 동양인 최초로 성 베드로 대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

성당 외감에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광스런 순간을 경험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성상은 갓과 도포 등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두 팔을 벌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팔을 벌려 모든 것을 품에 끌어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모양이어서 더욱 인상깊었고, 성상 좌대 맨 윗줄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라는 문구가 한글로 새겨진 걸 보니 나도 모르게 더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스페인 출신의 판토하(Diego de Pantoja) 신부가 출판한 '칠극대전(七克大全)'인 것 같다. 이 책은 서양 고대 철학자, 중세 성인들의 잠언과 일화, 이습 우화, 중국 고전 등을 폭넓게 인용하여 풀어낸 책으로 교리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양서'처럼 쓰여진 것인데, 조선에 전해지면서 정약용을 비롯한 성호 이익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창기 서학을 연구한 유학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스며든 것이라고 한다.

일화로 처방을 내리듯 친절하게 설명했다. 판토하는 이 칠극을 유가(儒家)의 수신극기(修身克己)와 결합하여 풀이하기도 해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 천주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칠극에 의한 천주교 수계생활을 28년간 행했다는 최초의 수덕자(修德者) 홍유한의 삶은 당시 이를 추종했던 권철신, 이벽 등 초기 천주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상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가톨릭 신앙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선교사 파견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관련 서적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나 뿌리를 내렸다. 16세기말 중국에 파견되었던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저술한 교리서인 '천주실의(天主實義)'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주실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서적은 같은 예수회 선교사로서 마테오 리치의 조력자 역할을 한

조선시대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함께 번역서를 발간한 한양대 정민교수에 따르면, 판토하는 인생을 위로는 7덕(德), 아래로는 7죄(罪)로 나누면서, 7덕으로 7죄를 극복하는 것이 7극(克)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만(傲)은 겸손으로 이겨내고, 질투(妬)는 어짊과 사랑으로 극복하며, 탐욕(貪)은 배움으로 풀고, 분노(忿)는 인내로 가라앉히며, 식탐(饕)은 절제로 누르고, 음란(淫)은 정결로 차단하며, 나태(怠)는 근면으로 넘어서야 하는데 그 단계와 방법을 적절한 예시와

필자는 내년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틈틈이 전국 각지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순례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성지들을 돌아보며 선조들의 신앙과 삶을 되새겨 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깨우치는 계기로 삼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신자들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마서 제15장 제33절 말씀으로 글을 맺는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

참된 행복

남창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_광희문 성지

신부가 되면서 스스로 결심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신부로 살면서 이사를 갈 때 이삿짐 트럭을 불러야할 만큼 짐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일 년간 보지 않았던 책들, 일 년간 입지 않았던 옷들, 일 년간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지는 것이 또 하나의 세부 원칙이었습니다. 보좌신부와 군종신부로 지낼 때까지는 잘 지켜왔던 이 결심이 특수 사목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빈민사목위원회 동료 신부가 입지 않는 옷을 받아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에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입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옷들이 어찌나 많은지 두 박스를 금 새 채웠습니다. 옷들을 전달하고 나머지 제게 있는 물건들을 찬찬히 뜯어

왔습니다. 사놓고 읽지 않은 책들부터 이사를 올 때부터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했지만 금 새 쓸모가 없어진 물건에서,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주문했던 물건들까지 사제로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 아닌 것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추려보니 성서, 성무일도, 교리서, 교황문헌, 제의, 제구, 수단, 그리고 즐겨 입는 계절 옷들과 노트북 뿐이었습니다. 새 신부 때 결심했던 꼭 필요한 물건들만 모으면 여전히 저의 작은 차 트렁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이것저것들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그 행복이 일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두 번째, 그 행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원하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과 의 우정입니다. 그분과 매 순간 함께하고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분을 향유할 때 느끼는 행복은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그 우정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

비버의 “바이올린 소나타 16곡”

성모에게 바치는 신비의 로사리오 소나타

조병선 바이올린_청주대 법학과 교수

계간으로 바뀐 가톨릭직장인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우리 음악 여행도 다시 시대를 거슬러 1644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는 바로크음악의 시대였다. 우리는 바로크 하면 바로 비발디, 바흐, 헨델을 떠올리지만, 당시에 그치고 현재도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비버(Heinrich Ignaz Franz Biber)’라는 걸출한 바로크 작곡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비버는 보헤미아 지방의 바르텐베르크(Wartenberg, 현재는 체코의 Stráž pod Ralskem)에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에는 출생기록이 없는 경우 유아세례의 기록으로 출생연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대략 그때쯤 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여 올로무크(Olomouc)의 추기경이 고용하였다. 올로무크 추기경이라는 자리는 베토벤을 평

생 후원하였던 루돌프 대공이 취임하였던 직위로 베토벤이 그를 위하여 장엄미사(Missa Solemnis Op. 123)를 작곡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비버는 그 후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대주교에게 고용되어 이직하였다. 이 또한 후에 모차르트를 박대하였던 콜로레도 대주교로 유명한 직위였다. 비버는 잘츠부르크에서 여생을 보내며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을 다수 작곡하였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로사리오 소나타라고 불리는 15곡의 신비(Mystery)의 소나타들이다. 그중에서도 그 정점을 이루는 제10번 ‘십자가처형(Crucifixion)’을 보면, 바이올린의 낮은음의 세 현(g, d, a)은 튜닝하지 않고, 오로지 고음현만 낮게 e에서 d까지 튜닝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튜닝된 바이올린으로 계속 변주를 하게 되는데, 이전의 소나타 3번의 ‘성탄(Nativity)’-



주제(이 성탄 주제는 3번 이후 4번, 6번, 9번에 계속 등장한다)를 변주한 것이다. 처음부터 날카로운 화성을 주어 예수님의 몸을 할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점점 발전시켜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 나타나는 천둥과 번개를 묘사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대비된다. 이 소나타는 요즘 시리즈물의 연속극에 비유하자면 결국 매회 진행되면서 그 중심부에 ‘슬픔이 신비(Sorrowful Mysteries)’로 정점을 이루도록 구성된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버의 15개의 신비의 소나타들(Biber's 15 Mystery Sonatas)은 대략 1678년 잘츠부르크 대주교에게 고용되었을 당시에 작곡되어 대주교에게 헌정되었다. ‘성모 마리아

의 생애의 15개 장면의 신비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는 15개 각각의 소나타는 가톨릭교회의 묵주신공(Rosary devotion)의 각각의 단편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로사리오 기도는 기도문을 보면 모두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에 대한 명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버의 음악을 후대에나 등장하는 ‘프로그램-음악’(후대 낭만파시대의 음악으로 치면 ‘표제음악’)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음화(音畵, tone painting)’라고 불리는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후대에나 나를 표제음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바로크 음악가들, 특히 바흐도 종종 사용하였던 어떤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가 마치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



Ariadne Daskalakis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 무파: 바이올린 소나타 -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 (Heinrich Ignaz Biber:
Rosary Sonatas / Georg Muffat: Violin Sonata)



Gunar Letzbor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묵주 소나타] (Biber:
Mystery Sonatas / Rosary Sonatas) [2CD]

지는 듯하여 ‘음화’라고 하였는데, 바흐도 예수님이 흘리시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한다든지 성모 마리아가 태중의 아들 예수의 태동을 느끼는 장면 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비버는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명상에 구체적인 사건을 마치 그림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음악을 구체화시켰다. 비버는 사실 후대의 전설적인 파가니니에 앞서서 당대 뛰어난 기교를 구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비버의 바이올린 소나타에는 당연히 현란한 기교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현을 일부러 재조율(re-tuning)하기도 하고, 잘못된 조율이라는 뜻의 ‘스코르다투라(scordatura)’를 사용하여 일부러 불협화음을 내도록 하였다. 오직 첫 곡만이 이러한 첨단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형적인 보통의 기법(5도 간격의 현)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4곡은 모두 이러한 기법과 함께 빠른 운지를 사용해야 하는 고난도의 곡이 되었다. 고난도의 ‘더블 스탱(double stop)’은 기본이 될 정

도로 기교적이다. 그래서 현대의 음악학자들은 비버의 음악을 보다 내적으로 심오한 독일의 바로크와 보다 외적으로 화려한 이탈리아 바로크의 절묘한 조화라고 하면서 경탄하고 있다. 비버의 로사리오 소나타는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매 장면을 그대로 음악적으로 묘사하여 음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마치 ‘동판에 새겨진 각각의 장면’을 그대로 음악으로 보는 것 같아 그대로 연속곡이 된다. 실제로 처음 이 곡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을 당시 로사리오 15개의 장면을 새겨넣은 동판화가 필사본 악보에 매곡마다 들어 있었기에 그 곡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는지 암시를 주었다. 비버의 로사리오 바이올린 소나타는 말 그대로 음화로서 15곡을 바이올린과 콘티누오(continue)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동판에 새겨진 소나타(copper-engraving sonata)’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콘티누오는 바로크의 다성음악을 구성하는 별도의 악기를 의미하는데, 흔히 저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바

소 콘티누오’라고도 한다. 콘티누오 악기로는 보통 건반악기(첼발로)나 저음의 비올(첼로)이 쓰였다. 이러한 로사리오의 신비한 15장면에 에필로그로 가져다 붙여도 무방한 곡이 한 곡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비버의 ‘파사칼리아 g단조(Passacaglia in G minor)’이다. 이 곡은 그 내용으로 ‘수호천사의 향연(feast of guardian angels)’을 담고 있는데, 콘티누오를 동반하지 않고 바이올린만이 홀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독주곡이다. 원래 파사칼리아는 원래 17세기초 유행하던 스페인의 춤곡이었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변주곡 형식의 느린 3박자의 독립 기악곡이 되었다. 바흐의 기악곡에도 파사칼리아가 자주 등장하듯, 많은 바로크 작곡가들이 애용했던 춤곡 형식이다. 비버의 ‘파사칼리아’는 첫 곡처럼 보통의 튠닝이어서, 첫 곡과 마지막 곡은 스코르다투라 튠닝이 아니라 평범한 튠닝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신비의 소나타 15곡에 파사칼리아를 더하여 모두 16곡으로 로사리오

묵주기도를 성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6곡을 ‘성모 마리아 기도서’라고 묶을 수 있다. 비버의 16곡을 우리는 현재 크게 3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각각 ① 기쁨의 신비(Joyful Mysteries) ② 슬픔의 신비(Sorrowful Mysteries) ③ 영광의 신비(Glorious Mysteries)이 된다. 16곡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올린 소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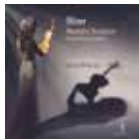
1. 수태고지(The Annunciation)
2. 동정 마리아의 엘리자벳 방문(The Visitation)
3. 성탄(The Nativity)
4. 어린 예수의 성전 출현(The Presentation of the Infant Jesus in the Temple)
5. 12살의 예수(The Twelve-Year-Old Jesus)
6. 올리브언덕의 예수(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7. 기둥 위의 그리스도(The Scourging at the Pillar) -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를 의미함
8. 면류관(가시왕관)(The Crown of Thorns)
9. 십자가를 지신 예수(Jesus Carries the Cross)
10. 십자가에 못박히심(The Crucifixion)
11. 부활(The Resurrection)
12. 승천(The Ascension)
13. 오순절(Pentecost) - 성령의 강림을 의미함
14. 성모승천(The Assumption of the Virgin)
15. 성모시복(The Beatification of the Virgin) - 천상모후의 관을 씌우심
16. 파사칼리아(Passacaglia)

Pavlo Beznosiuk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Biber : Rosary Sonatas)



Daniel Sepec / Hille Perl
하인리히 이그나츠 비버: 미스터리 소나타
[로자리오 소나타] (Heinrich Biber: Rosary
Sonatas) [2SACD Hybrid]





비버: 목주 소나타
(Biber: The Rosary Sonatas) (2CD)
- Lina Tur Bonet



Andrew Manze
비버: 로자리오 [목주] 소나타 전곡
- 앤드루 맨지, 리차드 이가 (Heinrich Ignaz Franz
Biber: The Rosary [Mystery] Sonatas)
HM Gold 시리즈 [2CD]

Helene Schmitt / Francois Guerrier
비버: 로자리오(미스터리) 소나타 전곡 (Heinrich
Ignaz Biber: The Rosary Sonatas
[Die Rosenkranzsonaten]) 엘렌 슈미트, 프랑수아
게리에 외 [2SACD Hybrid]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Biber: Mystery - Rosary Sonatas) (2CD)
- Amandine Beyer



곡명 자체가 신비가 들어있어서인지 1905년까지도 비버의 곡은 알려지지 않다가 그 악보가 발견되어 출판되면서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을 흥분시켰다.

그 발견과정도 신비스럽다. 1905년 출판될 때까지 약 230년 동안 독일 뮌헨의 한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던 악보가 있었던 것이다. 발견 당시 이 필사본의 표지는 이미 소실되어 제목조차 알 수 없었으나, 열다섯 곡의 시작마다 곡 내용을 암시하는 동판화가 새겨져 있었다. 그 판화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모승천까지 이어지는 목주기도의 신비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버 300주년, 350주년 기념 콘서트들이 세계 도처에서 성대하게 진행되고 수많은 음반들이 쏟아져나와 과히 ‘비버 르네상스’가 되었다. 우리에게 과연 ‘비버 르네상스’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비버는 악기에서 새로운 음색을 찾아내고 음악적 효과를 높이려는 실험적 시도를 한 개혁적인 음악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기존의 5도 간격의 평범한 조율 방식이 아닌, 현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여 특이한 음색,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율 방식을 사용하였다. 비버가 즐겨 사용한 ‘스코르다투라(scordatura)’라는 조율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로사리오 소나타는 드라마틱한 동시에 신비로우면서 매력적인 음악이 되었다. 매 곡마다 다른 조율을 사용함으로써, 목주기도 내용에 부합하는 음악적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배경음악, 우리는 그 배경음악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대의 비버야말로 이미 오늘날의 영화음악의 선구자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비버의 창의성은 그 음색과 분위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위의 11번 ‘부활’에서는 바이올린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서로 교차되게 줄감개에 걸어서 악기에 십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조율 지시를 해놓았다. 바이올린 연주자 스스로가 자신이

연주하는 곡이 십자가의 신비에 기초하여 연주하는 것이라는 점을 연주자에게도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당대 연주자에게는 무척이나 고난도의 곡으로 연주기술이 탁월한 연주자에게조차 까다로운 곡일 수밖에 없었다. 연주자 입장에서 보면, 스코르다투라 조율 자체가 표준적인 조율 방식이 아니다 보니,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귀를 열어야 하였다. 연주자가 흔히 연주하던 평소와 다른 음이 나오더라도, 연주자는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새로운 소리에 적응해야 하였다. 또한 연주자는 그러한 화음을 내기 위한 고난도의 주법에 익숙하도록 단련을 해야 하였고, 확장된 음역에서 빠른 연결도 연습해야 하였다. 비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누구도 연주하지 않았던, 전에 없던 새로운 연주법이었기에, 비버의 로사리오 소나타는 당대의 연주자들에게 더욱 어려웠기에, 1676년경에 작곡되었지만 오랜 동안 잊혀져 왔던 이유로 납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버의 과감한

창의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드리고 있는 목주기도에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빛의 신비’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17세기 비버가 작곡할 당시에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만으로 구성되었었고, 각각 5단씩 총 15단만으로 구성되었었기에, 비버는 열다섯 곡의 소나타를 작곡하였다. 목주기도를 드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비버의 로사리오 소나타와 함께 드리면서, 이른바 음화의 매력에 빠지면서, 더욱 깊게 신심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버의 이 위대하고 창의적인 음악이 어찌 가톨릭 신자에게만 국한되리오,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비버의 음악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어코 살아간다는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줄 것이리라! ☺

다양성은 관용을 필요로 합니다!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고해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창세 45,4-5,7)

올해 개봉한 디즈니의 <인어공주> (2023)가 논란이 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어공주가 ‘흑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동화가지니고 있던 메시지의 상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테르센 원작 인어공주와 디즈니판 인어공주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어공주들

은 모두 물 너머의 세상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주들은 열여섯 살이 되는 생일에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섯째까지 공주들은 저마다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각자의 성격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체험과 감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물론, 막내의 체험이 가장 드라마틱했습니다.

막내 공주는 배 위에서 벌어진 왕자의 생일잔치와 화려한 폭죽놀이를 보았고 연이어 폭풍 속에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침몰하는 배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왕자를 구한 인어공주는 왕자와 그가 속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인간들이 좋아졌습니다. 언니들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의문들은 할머니가 풀어 줍니다. 그중의 하나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어들은 비록 삼백년을 살지만 그 후에





는 거품으로 변해 버려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뚫고 빛나는 별들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인간이 지닌 죽지 않는 영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성직자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그녀의 손에 올려놓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맹세를 하면 가능하다고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없는 영화에는 갈등과 대립이 가득합니다. <물란>(1998)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 징병을 수행할 수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 영웅이 되어 돌아오는 물란이 물 위의 세상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아버지와 대립했던 인어공주가 결정

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함께 얻어내는 모습에도 담겨 있습니다.

영화의 이웃 나라 공주는 마녀가 변신한 존재였지만 원작의 공주는 그저 이웃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맹세를 얻어내지 못한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서도 언니들에게 받은 (이웃 나라 공주를 향한) 칼을 포기하자 그녀는 ‘공기의 딸’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기의 딸들은 비록 죽지 않는 영혼은 없지만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녀가 변신한 이웃 나라 공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영화 속 공주와는 달리 안데르센의 공주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 웃음 지으며 영원한 생명에 한발 다가설 자신의 모습에 희망을 겹



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미움이 극에 달한 형들은 들에 찾아온 요셉을 구렁이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그들이 구렁이를 찾아갔을 때는 요셉을 정말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요셉은 감옥에서의 인연으로 파라오의 꿈을 풀이함으로써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불행의 시작이었던 꿈이 행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안배하셨던 길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원작 인어공주에는 많은 조정자들이 등장합니다. 할머니, 다섯 명의 언니들, 공

기의 딸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어공주 스스로 왕자의 결혼을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 인어공주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현자로서의 할머니도,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동생을 배려하는 언니들도, 이웃나라 공주를 축복하는 인어공주도 없습니다. 인종적인 다양성을 전시하지만 오히려 다양성은 사라지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만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동화도,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들도 현재에 비추어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도적 가치에 대한 무비판적 봉사라면 그것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화면 뒤에 감추어진 부족한 성찰이 크게 도드라질 뿐입니다. ⊕

지금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①

심연선 소화데레사_성지순례 전문 여행 가이드

성지순례 가이드 및 인솔자인 저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많이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성지를 추천하시나요?’, ‘딱 한 군데만 간다면 어느성지를 가야할까요?’, ‘가셨던 성지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딱 한군데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스라엘 성지를 추천합니다.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갈등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하올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직접 가서 그곳 햇볕의 농도와 공기의 촉감을 느껴 본다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다른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필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추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두 장소를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이탈리아, 다른 하나가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꼭 한 번쯤 가시기를 추천하는 곳 -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산티아고 도보순례를 순례자들을 모시고 인솔자로 총 5회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은 그보다 더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스페인 성지순례 여정 중이어서 도보순례를 하지는 않고 버스를 타고 대성당 순례만 하곤 했습니다. 제게 산티아고는 신자들 외에 히말라야 산 정복을 하듯이 800km를 트레킹 코스삼아 걷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 어느 때처럼 순례자분들과 함께 야고보 성인 유해 앞에서 순례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엉엉 울고 있는 도보순례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지순례는 ‘부르심이 있어야 간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가는 도보순례는 꽤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북쪽 길, 포르투갈 길, 은의 길, 프리미티보 길 등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걷는 길은 프랑스 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정표





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 생 장 피테 포트에서 시작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 중에 사리아부터 시작하여 산티아고까지 다다르는 마지막 약 100km되는 거리를 걷는 순례를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자신감을 얻은 후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코스를 만들어서 200km 두 번, 피레네 산맥과 어려운 부분을 조금 뺀 여정인 150km 두 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0~30여 명 되는 순례자들과 지도 신부님을 모시고 가이드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큰 짐은 버스 또는 호텔에 두고 최대한 가벼운 작은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시작해서 자율적으로 걷고 점심때 목적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난 후에 다시 걷고 저녁 전에 목적지에서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도보 순례를 하지 않고 호텔에서 쉬거나 점심 목적지, 저녁 목적지에서 쉬어도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너무도 하고 싶으신데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으신 분들 또는 홀로 순례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에

게 아주 알맞은 코스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긴 쉬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늘 순례자들과 위와 같이 편안하게 순례해왔던 터라 8기로 되는 배낭을 메고 좁은 이층침대가 놓여진 알베르게에서 불편하게 자면서까지 고생하는 용기가 거의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공백 후에 야고보 성인으로부터 다시 산티아고로 초대 받게 되었고 2022년 봄, 성주간에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도록 불러주신 주님, 성인성녀들, 한국에서 기도해주는 분들, 가족들 그리고 성모님!

산티아고로 가는 도보순례의 시작은 늘 루르드입니다. 2년의 공백 뒤에 처음으로 올라탄 비행기의 첫 목적지는 프랑스 루르드였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포근했던 3월의 루르드에서 늘 변함없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계시는 성모님을 뵈오며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클로이스터 정원

황주영 레지나_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세 시대 수도원의 정원은 생산과 노동, 그리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수도원의 정원은 아름답고 흥미롭지만, 일반 신자들이 쉽사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쉽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닌지, 외국의 박물관이나 공원에는 수도원의 정원을 꽤 그럴듯하게 모방한 정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가장 유명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클로이스터 정원을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동서고금의 다양한 예술 작품과 공예품 등을 소장한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정원은 이곳이 아니라, 미술관의 분관이자 중세미술 전문 미술관인 클로이스터스(Cloisters)에 있습니다.

클로이스터스 미술관은 고색창연한 건물의 외관부터 중세 유럽의 수도원을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은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부호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수많은 중세 유럽의 미술품을 수집했고, 이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록펠러는 이를 전시할 미술관까지도 지어 기부했는데, 이것이 클로이스터스 미술관의 시작입니다. 건축가는 프랑스 곳곳에 있는 수도원 건물을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절충한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폐허로 남아 있던 중세 수도원 다섯 채를 해체하여 미국으로 가져온 뒤, 이를 재조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비슷한 재료를 구해 덧붙여 미술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록펠러는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





©flickr

풍성한 전시장을 돌다가 몸과 머리가 피곤해지면 미술관의 가운데에 있는 정원으로 갑니다. 세 곳 중 어디든 좋습니다. 네모난 정원은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두 개의 직교하는 길이 공간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두 길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에는 작은 분수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에덴동산의 샘을 떠올리게 한다. 풍성하게 심긴 식물들 또한 중세의 문헌과 문학 작품 등을 연구하여 알아낸 것들이라, 실제 중세 시대 수도원과 흡사합니다.

이곳은 진짜 수도원은 아니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증이 잘 된 정원은 학문적인 호기심을 자아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번잡한 도시에서 바쁜 일정에 쫓기듯이 살다 문득 쉼표가 필요할 때, 마음이 소란할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정원이 아닐까요. ☺

지 클로이스터스 미술관 근처와 허드슨강 너머의 땅까지 사들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물관 방문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인 맨해튼의 한복판에서 고요한 중세

수도원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소장된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필사본, 스테인드글라스, 상아 조각, 태

피스트리, 제단화 컬렉션은 어느 유럽의 미술관 못지않게 빼어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술관의 보물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이름부터 수도원의 예배당 옆 중정, 클로이스터이니 말이지요.

속죄하고 회개한 성인들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속죄하고 회개한 성 마리아 막달레나

성인전에는 많은 성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정보, 일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끄심에 따랐다.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된 성 마리아 막달레나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 후 오롯이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통회하는 삶을 살았다. 성녀는 죄지는 자에 대한 하느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통회자의 본보기 되었다.

성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 1세기경)란 이름은 갈릴래아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 이름인 ‘막달라’(Magdala)에서 온 것이다. 성경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의 몸에 들어온 일곱 마귀 때문에 시달리다 예수님의 도움

으로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있었으며(루카 8,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래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마태 27, 56)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몇몇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다가 텅 빈 무덤을 발견한다.(루카 23, 3) 마리아 막달레나는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한다.(루카 24, 10) 이러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역할로 인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녀를 일컬어 ‘사도들을 위한 사도’(Apostolorum Apostola)라 불렀다. 그리고 2016년 6월 3일 로마 교황청의 심의회인 경신성사성은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마리아 막달레나의 의무 기념일을 축일로 승격하는 교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엘 그레코, 《회개하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16세기



조르주 드 라 투르, <촛불 앞에 마리아 막달레나>, 1640년경, 루브르 박물관, 파리

또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 1세(Gregorius I, 7세기경) 이후에는 성경의 인물 중 베타니아의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와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죄를 회개한 여자를 마리아 막달레나와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화가들은

그녀를 주제로 많이 그렸으며, 그녀는 속죄하고 회개하는 자, 죄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본보기였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2년)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종교화를 많이 그렸다. 살아생전에 큰 성공을 맛보았던 라 투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졌으나, 그의 작품은 20세기 초에 재발견 되었다. <촛불 앞에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림에서 일부가 가려진 촛불의 빛만이 유일하게 비치는 가운데, 책상 앞에 앉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 강한 빛과 짙은 어둠의 극명한 대비는 시간과 속세를 초월한 공간으로 그녀를 진실한 참회의 순간으로 이끌고 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마리아 막달레나는 은수자와 죽음의 상징인 해골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촛불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참회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그녀는 자신의 금발 머리카

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와 연결된다. 촛불은 순간 타오르고 마는 속성으로 삶의 유한함을 의미한다.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은 분이다. 그녀는 인간 욕망의 덧없음과 세속적 삶의 덧없음을 깊이 새기며 촛불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내면 깊은 묵상으로 세상의 빛인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깊은 신앙은 후대에 귀감이 되게 된다. 중세의 『황금전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 후, 한 마을로 들어가 30년 동안 홀로 집안에서만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매일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로 올라 천상의 음식을 먹으며, 천사들의 송가를 들었다고 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혼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 7) ㉸

직장공동체 해외 성지순례

일시 5. 12(일) ~ 15(수)(3박 4일)
장소 일본 나가사키 & 상·하교토

회비 1,690,000원
인원 선착순 30명(조기마감 가능)

접수 gikjang@seoul.catholic.kr



지난 해외성지순례 때

직장공동체 예비자교리

교리기간 4월~11월
교리방법 edwith를 이용한 온라인 교리
세례성사 11월 17일(주일) 13:30
명동대성당

직장공동체 전례교육

일시 4월 25일(목) 19:30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
내용 ① 올바른 해설과 독서
② 제대 준비

직장공동체 임원연수

일시 4월 27일(토) ~ 28일(일)
장소 엠베르센터(서울 은평구)
주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골로1,25)
대상 직장공동체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문의 ☎ 02-727-2078, 010-5925-2078 / 📱 gikjang2562

직	장	복	음	화	를
위	한	참	된	행	복

욕심없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하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동료들을 얻을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직장을 성당으로 바꿀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한 동료들을 기다려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외된 동료들을 챙겨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수고와 보람을 봉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평화스런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놓고 살게 되리라.”

(이사 32,18)

사진: 영영민 마텔다



진주교서울대교구 직장시목팀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72-2078 | Fax 02-753-3792 | Mobile 010-5925-2078 | KakaoTalk gikjang | E-mail gikjang@catholic.or.kr